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 한국지리 )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③ 6. ② 7. ⑤ 8. ② 9. ⑤ 10. ①  
11. ④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③

1. 지도 읽기

**정답 해설** : 하천은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제시된 지도가 1:50,000 지도이므로 등고선의 간격은 20m로 표시된다. 지도를 보면, A는 240m를 나타내는 등고선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220m보다는 높고 240m보다는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B는 220m를 나타내는 등고선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200m보다는 높고 220m보다는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 하천은 A에서 B 방향으로 흐른다.

**오답 피하기**

- ② C는 하천의 공격 사면이 아니라 퇴적 사면이다. 공격 사면은 유속이 빨라지는 사면이기 때문에 퇴적보다는 침식이 활발하다. C는 퇴적면이 발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 D와 E 사이에는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은 서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  
④ F에 떨어진 빗물은 고도가 낮은 쪽으로 흘러 하천으로 유입할 것이기 때문에 남동쪽으로 흐를 것이다.  
⑤ 장곡리와 신천리 사이에 표시된 ‘< >>< >’는 도 경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도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2. 하계망의 이해

**정답 해설** : 하천은 수많은 지류와 본류로 하계망을 이루며, 지류에서 본류로 갈수록 커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이 더 큰 하류의 하천이다. 따라서, ㉠에서 ㉡으로 갈수록 평균 유량이 많아지며 평균 수심도 깊어진다. 또한, 평균 하폭은 커지고, 하천의 경사는 완만해진다. 퇴적 물질의 입자 크기는 하류로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진다. A는 ㉠보다 ㉡이 더 큰 값이다. 평균 하폭, 하천의 경사,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중 평균 하폭만이 ㉠보다 ㉡이 더 크다. B는 ㉡보다 ㉠이 더 큰 값으로 평균 수심과 하천의 경사 중에는 하천의 경사가 이에 해당한다.

3. 기온의 동서 차이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기간의 지역별 분포 특징을 기온 분포 특징을 반영한다. 같은 위도의 내륙 지방이 가장 기온이 낮고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으므로 C-A-B 순으로 (가)의 기간이 길어진다.

#### 4. 영해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ㄱ. (가)는 거제 남쪽 해상으로 대한 해협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해역이다. 이 지점으로부터 6해리 떨어진 곳은 영해 범위 밖이다. 대한 해협 부근 수역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범위가 영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영해 밖에서는 외국의 여객선이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항이 가능하다.

ㄷ. (나) 지점은 서해에 위치해 있다. 서해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까지가 영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나) 지점의 동쪽 10해리 해상은 영해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 경찰의 경비 활동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ㄴ. (가) 지점의 서쪽 6해리는 기선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영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외국의 헬기가 그 상공을 비행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비행할 수 없다.

ㄹ. (나) 지점 서쪽 10해리 해상은 영해 범위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배가 해저 탐사 활동 등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 5. 도시의 기온 변화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ㄴ. (나)의 경우 인천, 강릉, 목포, 부산 등의 해안 도시는 서울이나 청주 등의 내륙 도시에 비해 기온의 평균 상승폭이 작다.

ㄷ. (나)의 경우 대구, 부산 등의 영남권 도시는 서울, 인천 등의 수도권 도시에서 나타나는 기온의 평균 상승폭보다 작다.

#### 오답 피하기

ㄱ. (가)의 경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는 강릉, 청주, 전주, 목포 등의 도시에 비해 기온의 평균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

ㄹ. 기온의 상승폭은 (가)의 1월 평균 기온 상승폭이 (나)의 8월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

#### 6. 기후 요소의 분포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지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지역은 대관령 일대와 동해안에 이르는 지역이다. 남부 지방에서는 서해안, 특히 전라북도 일대에서 높은 값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포 특징을 보이는 기후 요소는 강설량이다. 전북 해안에서 소백산맥 서사면에 이르는 지역은 눈이 비교적 많이 내리는 지역이며, 대관령과 동해안

일대는 대표적인 다설 지역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연강수량은 한강 중·상류와 대관령 일대, 남해안, 제주도 등이 많은 편이다. 제시된 지도는 강수량이 가장 많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값이 매우 낮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연강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연평균 기온은 위도가 낮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시된 지도의 기후 지표 값은 연평균 기온의 분포 경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 ④ 1월 평균 기온도 연평균 기온과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 ⑤ 기온의 연교차는 북부로 가면서 커지고, 동일 위도상의 지역에서는 내륙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시된 지도에서는 중·남부 내륙 지방보다 서해안 지역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기온의 연교차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북부 지방의 지형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ㄷ. (다)는 낭림 산맥이다. 한국 방향 산맥으로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 형성된 1차 산지에 해당하며, 고도가 비교적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ㄹ. (라)는 금강산이다. 금강산을 이루고 있는 기반암은 화강암이며, 이 화강암은 중생대에 관입하여 형성된 심성암이다.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됨에 따라 심성암으로 형성되었던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절리가 많아지고 이 절리를 따라 풍화와 침식이 활발해져 오늘날과 같은 돌산이 형성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ㄱ. (가)는 백두산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봉우리가 위치해 있으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가 분포한다. 이 백두산의 기반암은 석회암이 아니라 화산암이다. 북한에서 석회암은 평남 지향사 부근에 주로 분포한다.

ㄴ. (나)는 함경 산맥으로 중국 방향 산맥이다. 한국 방향 산맥으로는 낭림 산맥과 태백 산맥이 있다.

**8.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의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석회동굴이다. 석회동굴은 석회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 조선누층군이 분포하는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에 주로 발달해 있다. 조선누층군은 고생대 전기에 퇴적된 지층이다. 한편, (나)는 용암동굴이다. 용암동굴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동굴로 우리나라에서는 화산 활동이 신생대에 활발했기 때문에 이 유형의 동굴의 기반암은 신생대에 형성된 것이다. 즉, (가)는 고생대, (나)는 신생대에 형성된 암석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으므로, 동굴을 이루는 기반암의 형성 시기는 (가)보다 (나)가 훨씬 늦다.

**오답 피하기**

- ① 옥천지향사는 우리나라 중부 지방에 걸쳐 있으므로 석회동굴의 주요 분포 지역

도 중부 지방이다. 용암동굴은 제주도에 주로 분포한다.

③ 석회암은 탄산가스가 용해되어 있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며, 이러한 석회암의 절리를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동굴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하수면의 변화가 동굴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④ 용암동굴은 화산 활동에 의해 용암이 분출했을 때 흐르는 용암의 표면과 내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되는 지형이므로 지형 형성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에 비해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하수에 의한 용식 작용이 진전됨에 따라 형성된 지형이다.

⑤ 기반암의 절리 밀도가 영향을 미치는 동굴은 석회동굴이다. 용암동굴은 절리 밀도와 관련 없이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동굴이다.

#### 9. 해안 지형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지형의 발달 장소와 그 주변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염전이 주변에 발달한 C는 간석지 즉, 갯벌이며, D는 사빈이다. 사빈은 주로 모래가 퇴적된 지형이며, 간석지는 점토 등의 미립물질이 많이 포함된 퇴적 지형이다. 따라서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는 미립물질이 많은 C보다 모래가 많은 D가 더 크다.

#### 오답 피하기

① A는 육지 안쪽으로 들어간 만의 성격을 띤 곳이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퇴적 지형인 사빈이 발달할 수 있다. 해식애나 시스택은 암석이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에서 잘 나타난다.

② 염전은 바닷물을 가두어 햇볕으로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소금 결정을 모으는 곳으로 바닷물을 쉽게 끌어들이 수 있는 곳이면서 햇볕이 좋고 증발이 잘 되는 곳이라야 좋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햇볕이 좋지 않고 증발량도 적다. 이런 곳은 염전을 조성하기에 불리하다.

③ 파랑에너지는 암석이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에서 집중된다. C는 후미진 만과 같이 조류의 유속이 매우 느려지는 곳에서 주로 형성된다.

④ 최후 빙기에는 해수면이 하강하였기 때문에 퇴적 지형보다는 침식 지형이 많이 형성되었다. D는 사빈으로 해안 퇴적 지형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최후 빙기에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 우리나라의 지역별 농업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강원도, (나)는 충청남도, (다)는 경상남도이다. 강원도는 산지가 매우 많아 총 면적이 가장 넓음에도 불구하고 경지 면적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산지가 많기 때문에 평야가 적어서 경지는 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지 면적 대비 밭 면적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특징을 표시한 A는 강원도이다. 한편, (다)는 세 지역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곳으로서 도시가 많이 분포한다. 이 때문에 총 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다)

즉, 경상남도가 가장 낮다. (나)는 평야가 널리 분포하여 경지 면적이 넓으며, 경지 면적 대비 밭 면적 비율은 낮다.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해 보면, (나)는 B, (다)는 C와 연결하면 된다.

#### 11. 우리나라 지층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을 보면 ㉠은 고생대 초기의 조선누층군, ㉡은 고생대 후기에서 중생대 초기에 형성된 평안누층군, ㉢은 대동누층군, ㉣은 경상누층군이다. ㉣은 신생대 제3기에 퇴적된 지층을 의미한다. 중생대의 육성층인 경상누층군은 지각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층으로 발달해 있으며, 이 때문에 중생대에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이 이 지층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조선누층군에는 석회암이 주로 분포하며, 무연탄이 다량 매장된 곳은 평안누층군이다.
- ② 평안누층군은 북부 지방에서는 평안남도에 널리 분포하며, 남한에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함경북도에 넓게 분포하는 지층은 주로 신생대 지층이며 지향사 발달과 관련없이 형성되었다.
- ③ 대동누층군이 형성된 시기에 한반도는 대보 조산 운동이라는 격렬한 지각 운동이 있었으며, 이 시기에 북동-남서 방향의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태백 산맥을 형성한 지각 운동인 경동성 요곡 운동은 신생대에 나타났다.
- ⑤ 신생대 지층은 우리나라에서는 넓게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넓게 분포하는 지층은 시원생대의 변성암층이다.

#### 12.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과 발전량 비중의 변화 이해

**정답 해설** : 1990년 이후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이 모두 낮아진 (가)는 석유이다. (나)는 1990년 이후 소비량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발전량 비중이 증가한 에너지로서 석탄이 이에 해당한다. (다)는 소비량 비중이 약간의 변화만 있었으며, 발전량 비중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 원자력이다. (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발전량 비중도 계속 증가한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동해가스전에서 소량 생산되어 국내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 ② 무연탄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석탄이 수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탄전의 경제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 ③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소는 대량의 냉각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해안에 입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고리), 월성, 울진, 영광 모두 원자력 발전소는 해안에 입지해 있다.

⑤ (가)와 (다)는 소비량 비중이 낮아졌으며, (나)의 경우에는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였는데 비해 (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량 비중이 높아졌다.

### 13. 제조업의 지역 분포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울산, 경기, 충남의 출하액이 많으며 그 뒤를 인천과 전북이 잇고 있다. 따라서 (가)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이다. 한편, (다)는 경북이 가장 출하액이 많은 것으로 보아 1차 금속이다. 1차 금속은 경북을 이어 광양제철소가 있는 전남, 울산, 경기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나)는 화학 공업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여수가 있는 전남이 가장 출하액이 많다. 이러한 분포 특징을 고려해 볼 때 A가 경기이며, B는 충남, C는 전남이다.

### 14.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의 이해

**정답 해설** : 사회적 증감은 전입과 전출의 차이, 자연적 증감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의미한다. 인구 증감은 이러한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을 더한 것이다.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지역은 사회적 증감이 0보다 크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곳은 전주, 군산시, 익산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의 여섯 개 시·군이다. 이 중 시에 해당하는 세 곳은 자연적 증가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인구가 모두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군 지역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증감은 0보다 작다. 그러나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을 더하면 0보다 훨씬 더 커진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군 지역도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군 지역 중 진안, 무주, 임실군은 인구가 증가하였다.
- ② 그래프에서 0보다 큰 인구 수를 모두 더하면 10,000명이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0보다 작은 인구 수가 적어도 5,000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대부분 모두 자연적 증감이 0보다 작아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 중 완주군의 경우에는 자연적 증감이 0보다 크다. 즉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 지역 모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다는 진술은 완주군 때문에 옳지 않다.
- 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은 지역은 자연적 증감이 0보다 큰 지역이다. 네 지역이 있는데 이들 중 세 지역은 사회적 증감도 0보다 커 인구 순이동이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완주군은 사회적 증감이 0보다 작다. 즉 인구 순이동이 음(-)의 값을 갖는다.

### 15. 지역 개발 방식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하향식 개발, (나)는 상향식 개발의 사례이다. 하향식 개발에 비해 상향식 개발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중시하여 주민 참여도가 높으며, 개발 규

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며 빠른 성장보다는 지역 간의 형평성, 환경 친화성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그래프에서 고르면 ㄹ이다.

#### 16. 도시 체계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에서 도시 간 도로 거리는 A에서 E로 갈수록 더 먼 거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나)와 다른 모든 도시와의 도로 거리의 합은  $A+B+A+D$ 이며, (다)와 다른 모든 도시와의 도로 거리의 합은  $B+B+C+E$ 이다. 따라서 그 합의 크기는 (나)보다 (다)가 더 크다.

#### 오답 피하기

- ① 상위 계층 도시는 하위 계층 도시보다 타 도시와의 상호 작용이 더 많다. 제시된 자료에서 도시 간 상호 작용은 도시 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로 파악할 수 있다. (가)는 타 도시와의 운행 횟수가 모두 50회 정도이며, (라)는 모두 110회 정도이다. 따라서 (가)보다 (라)가 훨씬 더 도시 간 상호 작용이 많은 상위 계층 도시이다.
- ② 도시 간 고속버스 운행 횟수는 (나)와 (다) 사이에는 40회, (다)와 (라) 사이에는 50회이므로 도시 간 상호 작용은 (다)와 (라) 사이가 더 활발하다.
- ④ 고속버스 1일 총 운행 거리는 도시 간 왕복 운행 횟수에 2를 곱한 후 도시 간 도로 거리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나)-(라) 노선의 고속버스 1일 총 운행 거리는  $20 \times 2 \times A$ , (가)-(다) 노선의 고속버스 1일 총 운행 거리는  $30 \times 2 \times B$ 이다. A보다 B가 더 긴 거리이므로 (나)-(라) 노선보다 (가)-(다) 노선의 1일 총 운행 거리가 훨씬 더 길다.
- ⑤ (마)에서 (가)로 가는 방법 각각의 거리는 (마)→(라)→(가) 노선으로 가는 경우  $C+B$ , (마)→(다)→(가) 노선으로 가는 경우  $E+B$ , (마)→(나)→(가) 노선으로 가는 경우  $D+A$ 이므로 (마)→(라)→(가) 노선이 최단 거리이다. 즉, (마)에서 최단 거리로 (가)에 가기 위해서는 (다)가 아니라 (라)를 거쳐야 한다.

#### 17.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지역 분포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강원도와 충북 등 산지 비율이 높은 곳에서 생산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력이다. 수력은 낙차를 크게 얻기 위해 하천의 중·상류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나)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일조시수가 긴 지역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중이 대체로 높다. 이들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 18. 권역별 인구 구조의 이해

**정답 해설** :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에 노년부양비를 합한 값이다. 수도권은 경우 2010년 총부양비는 34, 유소년부양비는 22이므로 노년부양비는 34에서 22를 뺀

값인 12이다. 총부양비는  $\frac{\text{유소년총인구} + \text{노년총인구}}{\text{청장년총인구}} \times 100$ 이므로  $\frac{22 + 12}{100} \times 100 = 34$ 로 계산하여 청장년총인구는 100이다. 유소년총인구는 22이고 노년총인구는 12이므로, 이 세 연령층 인구를 합하면 134이다. 따라서 노년층 인구 비율은  $\frac{12}{134} \times 100$ 으로 10%에 못 미친다. 한편 노령화 지수는  $\frac{\text{노년총인구}}{\text{유소년총인구}} \times 100$ 이다. 영남권의 경우 1990년에는 총부양비가 44이고 유소년부양비가 37이므로 노년부양비는 7이므로 노령화지수는  $\frac{7}{37} \times 100 = 18.9$ 이다. 2010년에는 총부양비가 38이며 유소년부양비는 22이므로 노년부양비는 16이므로 노령화지수는  $\frac{16}{22} \times 100 = 72.7$ 이다. 따라서 세 배 이상 네 배 가깝게 노령화지수가 커졌다.

### 오답 피하기

ㄴ. 총부양비가  $\frac{\text{유소년총인구} + \text{노년총인구}}{\text{청장년총인구}} \times 100$ 이므로, 총부양비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유소년총인구와 노년총인구를 합한 인구가 청장년총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충청권의 총부양비가 약 43정도이므로 50미만이며 청장년총 인구가 351만명이고 이 인구의 절반인 175.5만명보다 충청권의 유소년총인구와 노년총 인구의 합이 더 작으므로 충청권 전체 인구가 550만 명을 넘을 수 없다. 호남권은 그 보다 더 넘을 수 없다.

ㄷ. 강원·제주권의 경우 1990년에는 총부양비 47, 유소년부양비 37이며, 이 값이 청장년층을 100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frac{37}{147}$ ,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frac{100}{147}$ 이다. 2010년에는 총부양비가 46, 유소년부양비가 24이며, 이 값 역시 청장년층을 100으로 한 것이므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frac{24}{146}$ ,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frac{100}{146}$ 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 폭은  $\frac{37}{147} \rightarrow \frac{24}{146}$ ,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 폭은  $\frac{100}{147} \rightarrow \frac{100}{146}$ 이므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 폭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변화 폭이 훨씬 더 크다.

### 19. 지역별 제조업 비중 이해

**정답 해설** : 수도권(A)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지역내 총생산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ㄱ이고, 영남권(D)이 그 뒤를 잇고 있으므로 ㄴ이며, 강원권(B)의 비중이 가장 낮으므로 ㄷ이다. 따라서 호남권(C)이 ㄹ이다. 즉, A-ㄱ, B-ㄷ, C-ㄹ, D-ㄴ인 것이다.

### 20.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의 지역 분포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종사자 비율로 볼 때 모든 광역시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나)가 소비자 서비스이며 (가)가 생산자 서비스이다. 특화도가  $\frac{\text{지역의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text{전국의 해당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로 계산되므로, A시의 (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대략 19% 정도이고, 특화도가 1.26이니 전국의 (가)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frac{19\%}{1.26}$ 로 15%가 조금 넘는다. 특화도 자료에서 (가)는 (나)보다 광역시 간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서비스 업은 주로 도시에서 크게 발달하는 것이므로 제시된 자료와 같은 격차의 경향이 시도 간 격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오답 피하기**

- ㄱ. A는 생산자 서비스의 특화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부산이 아니고 대전이다.
- ㄴ. 지식 집약적 특성은 소비자 서비스보다 생산자 서비스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